



2006 · 8 289



2 昆水谷人 法語

7 가

8 (水靑閣) < >

11

12 金剛經釋密 ⑥ < 譯 >

16 '가 () < >

18 가 < >

22 < >

24

27 論語 ②⑤ < 譯 >

28 가

31 (舜) ③④

32 <城賢>

36

38

40

44

45

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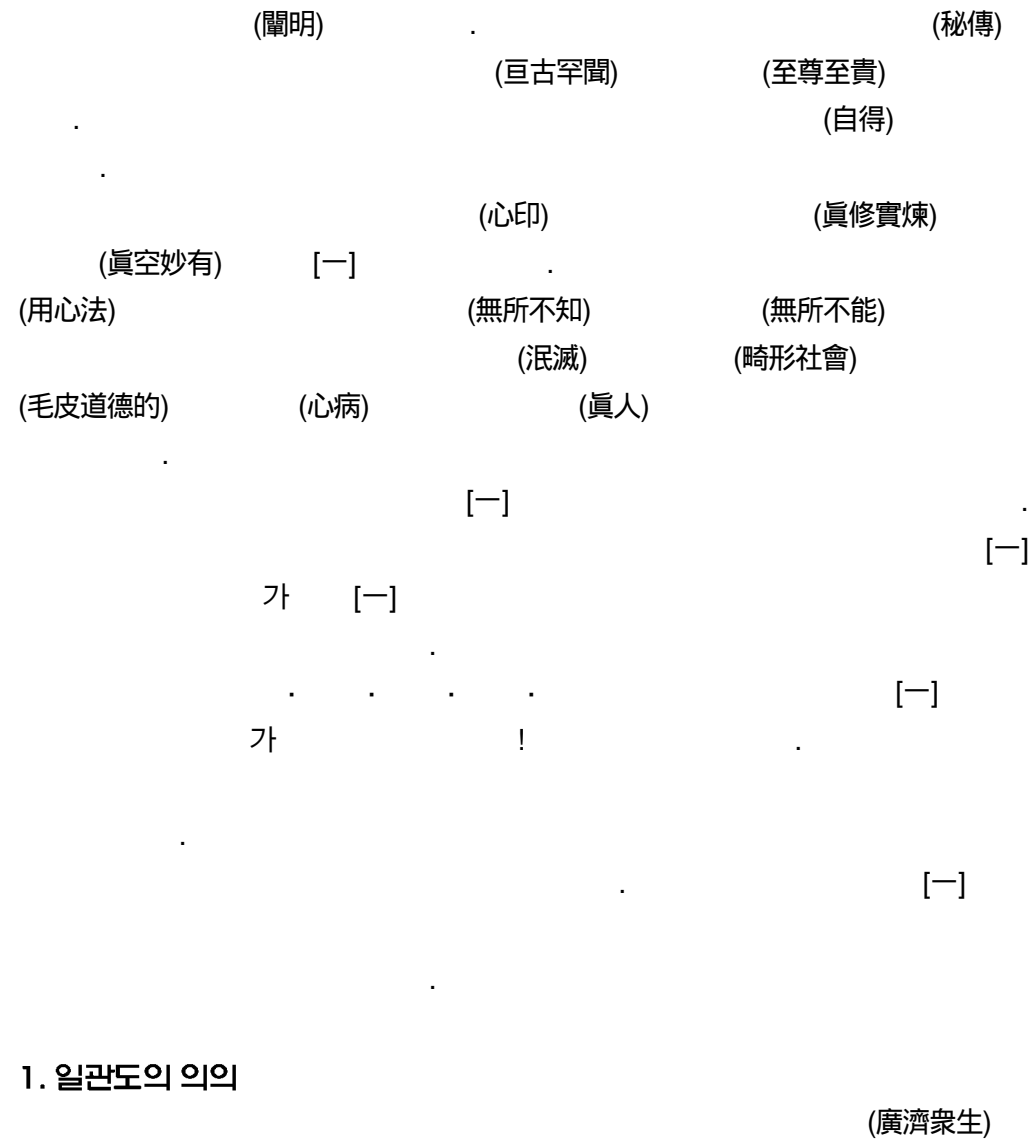
1968
1970

“ 가

” 故 가

:

일관도 교육방침



1. 일관도의 의의

[一] (道) [一] (貫) (天性)

가 [一]

(吾道一以貫之: .)”

2. 일관도법의 교육방침

(天命) · (性理) · (念頭) · (火候) · (懺悔) 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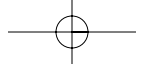
(天命) : 가 . (神聖)
 (性理) : (神聖) (忍耐)
 (念頭) : (唯 性) (耐火性) (火候度數) (慾火)
 一執念 (劫火)
 (火候) : (考) (魔) (考) (魔) (罪) (業)
 (懺悔) : 吮 (懺悔)

3. 일관도 교육방침 정의 해설

(眞空妙有) [-]
 (無所不知) (無所不能) 가 .
 [-]
 5

4. 성도지침(成道指針)
(火候 次元)

吮 (天命) , 가 (+) (慾) (-) (怨恨)
 (直指人心) (見性成佛) (+) (慾) (性質火) (三昧眞火)
 吮 (性理) (公害質) 가? (度數)
 吮 (念頭) 가 “ 가 (白刃可蹈也) 가 (中庸不可行也) ”
 (唯一傳統) 가 (念根) (念頭)
 吮 (火候) 가 ” 가



(氷靑閣)

가



< >

가
(氷靑)

가

100

가

가

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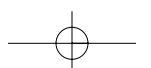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



가

가

가

怨者 無德 有德者 無怨 怨人者 不足自己之幸福
有德者 每豐富愛他之仁情也

愚者 自責輕薄 責人酷甚 賢者 自責甚刻 責人寬容也

가 ,
가 .

樂有二種 一曰 道樂 二曰 慾樂 道樂 發於真性真心 故 淡泊久遠
慾樂 發於情慾物慾 故 昏濁迷妄 是二種樂中 分大人小人之別也

가 가 .
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④

(妙行無住分) 4 ()

< : / >

【摘要】

1.

(六塵) 가 (外王)

(布施)

(財施)

施

(六度)

(布

(無畏施)

(慳貪心)

(三輪體

空)

2.

(菩薩於法)

(法)

(無上) ·

(正等) ·

(正覺)

3.

(不住色布施)

(體)가

(聲) ·

(香) ·

(味) ·

(觸) ·

(法)

(用)

(色塵)

(六塵)

가

(色塵)

가

(五塵)

가

(外王)

(六塵相)

(觸塵相布施):

(法塵相布施):

(色塵相布施):

(功)

가

(我相)

가

(六塵相布

施)

(聲塵相布施):

(四相)

(如是布施)가

(香塵相布施):

가

4.

(應如是布施)

(味塵相布施):

,

(六塵)

(如是)

(因果)
(四諦法)

(老子) “

(不住相)

(不德)

()

(本分)

(唯心)

가

가?

가

가

가

가

()

가

가

(所以然處 : 가)가

가?

6.

5.

가

가?

(孔子)

가

(四

(空) 가?

가

“ . ”

維)

가

가

가

가

(福報)

가

가

“

(妙行)

(福德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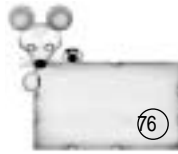
가

(果位)

(外王)

가

. < >



숨고 드러나는 법 깨달은 '가비마라 존자' (II)

<p>조용함을 좋아하여 혼자 있는데 젊은 비구가 와서 자주 법을 물었으므로 화를 내었더니</p>	<p>그 인연으로 뱀이 되어 천년을 살다가 비로소 존자에게 계법을 듣고 해탈하게 되었으므로 사례합니다.</p>	
<p>이 산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?</p>	<p>북쪽으로 10리를 가면 대수라는 분이 있는데 왕이 그분을 용수라 이름 했으며 항상 용과 같은 무리들에게 설법을 해주고 있습니다.</p>	<p>존자께서 그 곳으로 가니, 용수가 맞으며 말했다.</p>
<p>깊은산이라 외롭고 적적하여 용과 뱀이나 사는 곳인데 지극히 높으신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?</p> <p>나는 지극히 높은이가 아니다, 그대를 보러 왔을 뿐이다.</p>	<p>이 분은 도가 밝혀져서 견성하신 분이며 큰 성인의 참 법을 이어 받았을까?</p>	

<p>나는 너의 마음 속의 생각을 알고 있다.</p>	<p>출가할 결심이나 하여라!</p>
<p>용수가 이 말을 듣고 뉘우치며, 사과하니 존자가 곧 출가를 하게 하였고 오백의 용과 같은 무리들에게도 구족계를 주었다.</p> <p>여래의 거룩한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전하노라.</p>	
<p>非隱非顯法 說是眞實際 悟此隱顯法 非愚亦非智</p>	<p>법을 전한 뒤 삼매 속에서 열반에 드니 용수가 오색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우고 모셨다.</p> <p>때는 난왕 41년 임진년이였다.</p>

/ (吳貞儀)

가

(人生無常)

(吳貞儀) (75 :
) 1970 () 3 3

(吳良德 點傳師) 가
가
(梁卜心 點傳師)

(未來)

(世上)

上) (火食) ,
(千里) , (白陽運)
- 가 , (

) ,
,
가 , 가 ,
.”
.”
가

[.]

“ .”
“ ?”
“ 가 .”

가 -
가

(世 가 가



81

가 .
가
가
가
(辛亥年) 8 26 ,
76 13
11
()



< >

(山河)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“ (天災) (人災) .”

70%

70%가

가

70%

能力)

(轉寫

가

가

가

가

④



里仁 第四篇 第二十四章 (4 24)

子曰 德不孤라 必有隣이니라
자왈 덕 불고 필유인

句解 (隣)

(類)가

里仁 第四篇 第二十五章 (4 25)

子遊曰 事君數이면 斯辱矣요 朋
자유왈 사군삭 사육의 불
友數이면 斯疏矣니라
우삭 사소의

句解 (程子) “ (數)

(胡氏) “

< 〃 / >

(善)

가

가

가

(范氏) “

(義)

.”

(五倫)

(君臣)

(朋

友)

(人倫)

(義)

(義) 가(可)

가(不可)

(父子)

(兄弟)

(天倫)

(恩)

가

가

公冶長 第五篇 第一章 (5 1)

子謂公冶長하사되 可妻也로다
자위공야장 가처야
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
수재루설지중 비기죄야
하시고 以其子로 妻之하시다
이기자 처지

(公冶長)

“가

가 .”

句解

(公冶長)

(妻)

(縲)

(絏)

가

가

가

“ 가

가 .”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?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“

가 .”

가

가

가

, 가

가

가

子謂南容하사되 邦有道에 不廢
자위남용 방유도 불폐
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 하
방무도 면어형육
시고 以其兄之子로 妻之하시다
이기형지자 처지

(南容)

가

가



(混俗)
(眞天命)

城 賢

(汚名)

가

가 가?

(無心修行)

가

가!

(聖事)

가

가

(郷原)

가

가?

(混俗)

!

(爲道精神)

가

가

가

!

(無心修行)

가

“

”

가?

가!

“

”

가

...

가



가
 가?
 !
 ?
 (眞彌勒)
 가!
 가
 !
 (客) 가?
 가?
 가?
 가?
 ()가
 (混俗 眞彌勒)
 가 (假彌勒) 가?
 가 (混俗 眞彌勒)
 가
 ()

()
 가
 가 (假天命)
 (混俗 眞彌勒)
 가 가
 (昆水谷人 眞彌勒)
 가 (假彌勒)
 가 (假天命)
 가 (假彌勒)
 가 (假弓長)
 ()
 가 (自淨能力)
 가
 !

(道心) !
 가
 (混俗 眞彌勒)
 (自燈明 法燈明)'
 가?
 !
 (道心)
 (混俗 眞彌勒)
 (會規)
 !
 가
 (眞天命)
 (眞彌勒) !
 (三界火宅)
 (客)
 가?



독자마당



6

< >



가

가

2

가

가

가

3

가

가

. 10

. 3

가

6

가

!! ㉔

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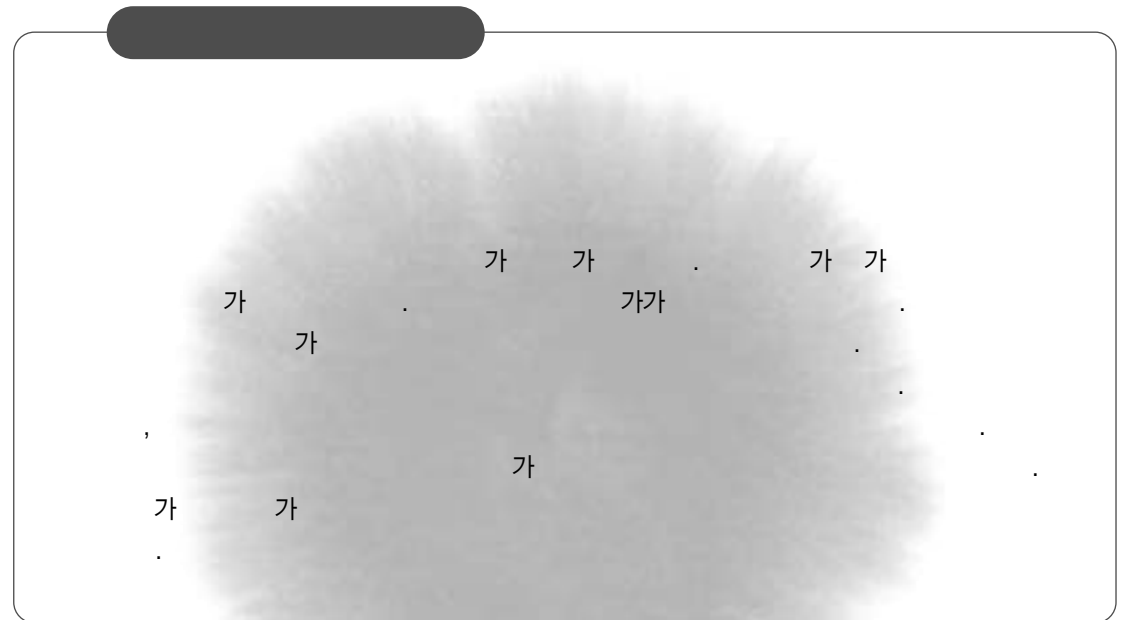
< 道 禪 >

(道) , (虛) (虛)
 가 . (眞空妙有)
 가 (包攝) (佛經) (本
 (天地) 來無一物 何處有塵埃) (道)
 가 (形)
 (陰陽) (妙)
 (氣)가 , (至精)
 가 (百念) (粉起) 가
 (火)가 (旺)
 (金) (剋) (肺) (保
 全)
 (氣)
 (神) (丹) (神)
 (堅固)

2g, , 1g (1. ,

가 2. ,
가)

가 (聖言)
 1g半, 1g, , , ,
 , 5g, (), , ,
 , 3 , 9
 ,
 . ⑩





곤수곡인 조상제례

7 1 (6 6) 가

(顯亡祖父 金文藻, 祖母 王文子, 父 金官成, 母 袁立心, 叔考 金文台, 故 胞兄 金錦堂, 胞二妹 金盤, 妻 張鳳蘭, 亡子 金樹新)

가
가

(皆大歡喜)

가

(, , .

)

(道)

가



가

가

”

“

가

”

“

가?

”

“

5

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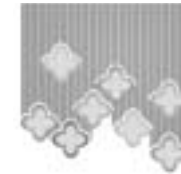
3000

72

”

”

가



청·구·요·리

< >

“ ”

가

(2)

300g, 1 , 50g, 2

- 1.
- 2.
- 3.
4. 가
- 5.



(天盤) 가?

“彌勒祖師妙法無邊 護庇衆生 懺悔佛前 改過自新 同助天盤” 我們為何只說彌勒祖師妙法無邊？而不說其他仙佛神聖也妙法無邊呢？大凡仙佛神聖沒有不妙法無邊 而其護庇救度衆生的方式和對象 却有所不同

“ (妙法) 가 (天盤) ”

(神聖) 가 가? 가 (仙佛) 가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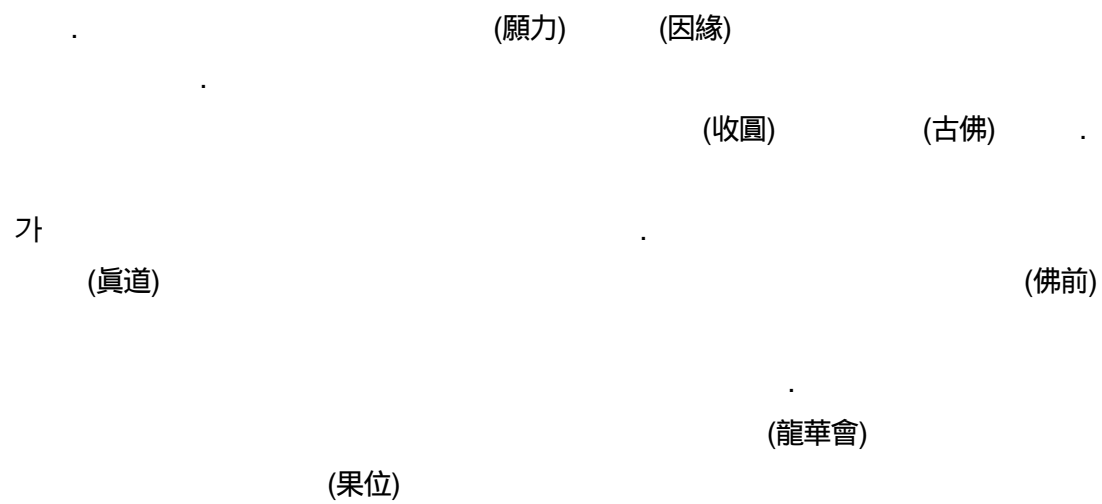
譬如阿彌陀佛的願力 凡是持念「阿彌陀佛」佛號者 能持念佛號至一心不亂 他日臨終之時 阿彌陀佛必來接引往生西方極樂世界 繼續修持 永不退墜 所以凡是持念「阿彌陀佛」佛號者 皆為阿彌陀佛護庇救度的對象 而能持念至一心不亂 臨終必受接引往生西方極樂世界 此為阿彌陀佛護庇救度衆生的方式

(阿彌陀佛) (願力) 가



가

而彌勒祖師護庇救度眾生的方式和對象更為簡易普遍 這是每一位佛的願力因緣不同之故所使然 彌勒祖師乃是應運此世界收圓的古佛 所以凡是能求得師尊師母的一貫大道 都是彌勒祖師護庇救度的對象 而得道以後凡是能時時真誠地在祖師佛前懺悔 并且改過自新者 即能協助祖師辦理收圓 并且能脫劫避難 而同住於人間淨土 於龍華會見佛 聞法 證果 此為彌勒祖師護庇救度眾生的方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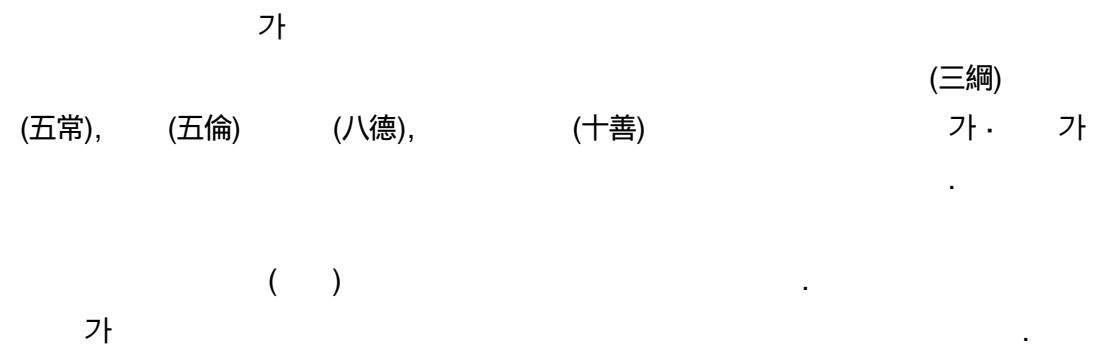


生活在這忙碌緊張的工商業社會 修行總是不能離開現實生活的 而一貫法門的修持方法最為平易實用 不但不會妨害了家庭和事業 反而有相輔相成之效

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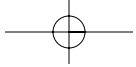
가 가 가 가 가

其方法就是好好做一個平平實實 堂堂正正的人 時時反省檢點自己 究竟自己的言行有沒有違背三綱五常 五倫八德 以及十善道? 有過即改 真心在祖師佛前懺悔(隨著個人的方便在每天的燒香禮中懺悔 也可以在自身佛堂默禱懺悔) 只要能如此修行 就可以不墜六道輪迴 時時與彌勒祖師同在



彌陀淨土的修行者 多是厭離污濁苦難的世間 而欣樂往生西方極樂世界 這種逃避現實 對世間少有貢獻的消極修行方法 實不適宜現今時代 而一貫法門的修行者 不但不捨污濁的世間 不離混亂的世界 進而化污濁的人間為人間淨土 化混亂的世界為大同之世

가 (彌陀佛) (淨土)



가 (淨土)가 가 (大同) 가

這種勇於面對現實 積極進取 視人溺己溺 起同體大悲 無緣大慈的修行方式 才是最適宜我們目前這個時代的需要 才是名符其實的大乘(菩薩)行人 這完全是彌勒祖師的本願所使然

가 (同體大悲)
(無緣大慈)
가 (本願)

[: 一貫義疏]

